

서울 아파트 거래 ‘뚝’… 대출규제·세 부담에 관망세 이어져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3012건
4개월째 감소… 전역 토허 후 최저
한강벨트7구·서남권 38.6% 감소
강북권·한강벨트 집값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4달 연속 줄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거주 의무 유에 확대에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서울 전역 지정 후 최저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전월 4618건보다 1606건(34.8%) 감소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8896건과 비교하면 5884건(66.1%) 줄었다.

토허 신청은 지난 4월을 정점으로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해 11월 4019건보다도 1000건 이상 적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

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5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4670건(97.6%)의 처리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8·3 세계개편안 역시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서남권 38.6% ↓

8월 하루 평균 토허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 209.9건보다 28.3% 감소했다.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줄었지만 감소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38.6% 감소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913건에서 561건으로 38.6%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는 31.4% 각각 감소했다.

전체 토허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강북권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강벨트 20.8%, 서남권 18.6%, 강남3구·용산구 11.7% 순이었다. 강북권 비중은 전월 46.4%보다 2.4%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매물 출회와 거래 활성화를 위

해 확대하고 있는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에도 아직 뚜렷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8월 실거주 의무 유에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4.5%에 그쳤다. 전월 207건보다 72건(34.8%) 줄었다. 전체 토허 신청도 비슷한 폭으로 감소하면서 유에 신청 비중은 4.5%를 유지했다.

◆거래 줄었지만 가격 0.17% ↑

거래 신청이 크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8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0.17% 올랐다.

강남3구·용산구는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 영향으로 전월보다 0.34% 하락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최근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의 영향으로 0.99% 떨어졌다. 반면 한강벨트 7개구는 전월보다 0.52%, 강북권 10개구는 0.61%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문 닫은 학교, AI교육·문화체험 시설로 변신

교육부-행안부, 폐교를 활력 거점으로
총 120억 투입… 지역 맞춤형 시설 개발

학생이 떠난 폐교가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체험장,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늘어나자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거점으로 되살리는 사업에 나선다.

14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폐교 활용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자문과 홍보 등도 병행한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마련한 폐교 활용계획 12건이 접수됐다. 양 부처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7건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5건,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2건이다.

경북 영천에서는 폐교한 화산중학교가 ‘영천 온지람 교육센터’로 바뀐다. 전남 여수의 나진초등학교 분교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남 나주의 폐교 문평남초등학교에는 교육과 휴식을 결합한 ‘나주 온(溫)공간’이 들어선다.

충남 예산에서는 대륜초등학교와 장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 ‘폐교-AI로 다시 여는 충남 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경

기과주 신산초등학교 분교는 생태체험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도 2건 선정됐다. 전남 영암에서는 칠성초등학교 폐교에 지역 특산자원인 황토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충북 괴산 도포초등학교 분교에는 ‘창의 캠퍼스 체험동’이 들어선다. 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6개국 마이스 바이어 송도로… 유치 총력

인천시 ‘마이스트래블마트’ 개최
마이스 인프라·관광콘텐츠 알러

인천시가 9월 14~17일 송도에서 ‘제3회 마이스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트래블마트에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의 해외 마이스 바이어 30개 사와 국내 마이스 기업 52개 사가 참여하며 이번 트래블마트의 중심이 되는 1:1 비즈니스 상담하는 오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맞춤형 사전매칭을 방식을 도입해 총 320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및 복합지구 내 관심 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체험하는 투어와 강화도 팸투어 등에 참여해 인천의 뛰어난 개최 여건을 확



인하게 된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국내외 기업과 인재를 인천으로 연결하고 관광, 숙박, 소비 등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트래블마트를 통해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와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확실히 알리고, 가시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 3세 유아 교육비 최대 11만원 지원

서울교육청, 내달부터 한시적 지원
4·5세와 시차 해소… 무상교육 앞당겨
사립유치원 11만원·어린이집 7만원 등

서울시교육청이 사각지대에 있던 3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아온 4~5세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에게 무상교육비·보육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누리과정을 다니면서도 4~5세보다 늦게 지원받게 되는 시차를 줄여 전 연령 무상교육 실현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3월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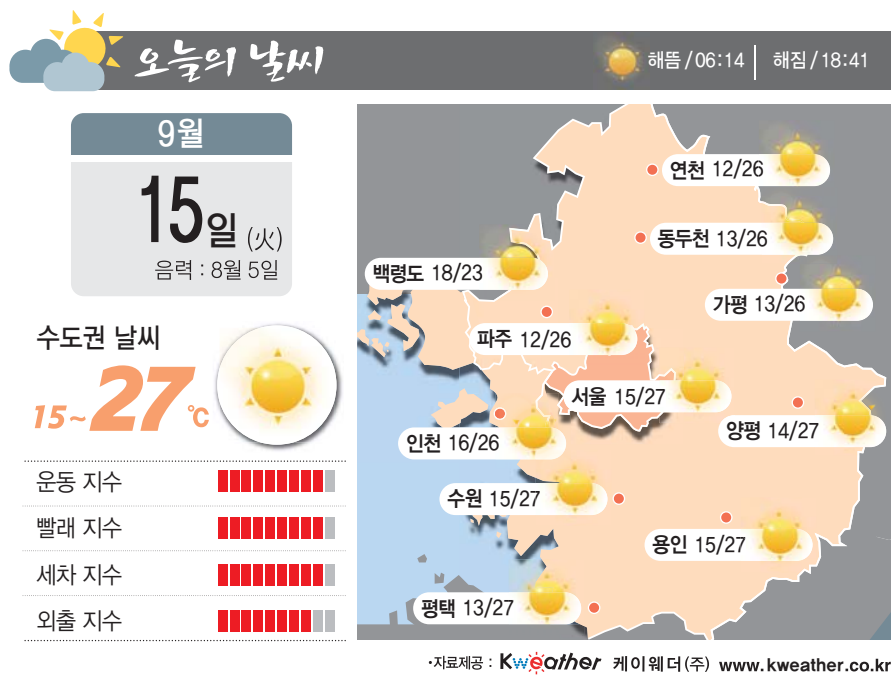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3만 4982명이

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생 3619명 ▲사립유치원생 1만2867명 ▲어린이집 원아 1만8496명이다.

시설별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비, 어린이집의 기타필요경비 명목으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확대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히려 학부모 부담금을 올리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일본 내년 과학기술 예산 사상 최대…전년비 73.7% ↑
▲시진핑, “브릭스 AI 오픈소스 지대 구축” 제안…인도엔 협력 강조
/사진 뉴시스

▲中베이징서 11월부터 드론 소유도 금지…처분 시 보조금
▲美의회, AI 위험성엔 공감…규제 주도권·개발 속도 놓고 여야 충돌

▲美 정보기관 10년 만에 최대 개편…AI·중국 전담 조직 신설
▲“사람 없는 배끼리 첫 전투”…우크라, 흑해서 러 무인정 파괴 발표